



세월호 인양 시점은 불교계가 세월호의 아픔을 보듬고 더 치기 시작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사회단체를 망라해 가장 오랜 시간을 희생자 및 미수습자 가족들과 함께 해온 불교계의 활동을 일부만 간추렸다. 왼쪽부터 팽목항을 방문한 진제 종정예하, 72시간 철야기도 중 인 스님들, 세월호 인양 촉구 오체투지, 팽목항을 방문해 기도하는 총무원장 자승스님. 불교신문 자료사진

세월호 아픔 함께한 종단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참사 다음날 팽목항 ‘방문’
종정예하 비롯 중앙·지방
주요소임자 기도 자원봉사...
목포신항에 범당 ‘기도계속’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여객선 침몰장면이 화면을 타고 전국에 보도됐다. 침몰하는 배 안에 갇힌 아이들의 모습이 작은 창문을 통해 비춰지면서 시민들은,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에 참사 다음날인 17일 ‘세월호 참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긴급재난 구조봉사단을 팽목항으로 파견했다. 생존자 및 실종자 가족에게 차와 라면 등을 제공하며 범당을 설치해 무사귀환을 발원하는 기도를 올리 기 시작했다.

조계종은 종단 차원에서 세월호의 아픔을 보듬고 함께 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쳤다. 진제 종정예하는 세월호 참사 사흘 후인 19일

팽목항을 찾아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을 위로한데 이어 5월2일에는 피해자 지원성금을 쾌척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4월27일 안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조문하고, 5월22일에는 팽목항을 찾아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위로했다. 침몰한 배 안에서 기대했던 생존자는 나오지 않았다. 수많은 꽃같은 아이들의 주검이 발견되면서 팽목항 임시법당에는 희생자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임 없이 이어졌다. 불교계 최대 제천인 연등회를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하는 국민기원의 장으로 서 엄숙하고 차분하게 거행하고, 구호봉사단이 팽목항에서 227일간 활동한 사례는 불교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종단은 이후에도 세월호에 대한 관심과 치유를 위한 노력을 놓지 않았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위령제를 비롯해, 추모사진전과 수록제,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3000배 기도, 봉사자와 접수사 등을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하

고,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촉구 범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조계종 사회노동위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함께 진도 팽목항과 세월호 참사 해역을 찾아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5차례에 걸쳐 봉행했다. 아직 수습되지 않은 희생자 가족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불교계는 같은 마음으로 세월호 인양을 간절히 기다렸다. 세월호 인양현장을 지켜보던 배에 유가족 외에 유일하게 양한웅 사회노동위 집행위원장이 동승한 것도 종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깊은 유대감이 밑바탕이 됐다.

세월호의 인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종단은 계속 함께 한다. 세월호가 인양된 후에도 사회노동위는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옮겨지는 시기에 맞춰 이곳에 임시 법당을 설치하고 미수습자가 수습될 때까지 현장을 지키겠다는 계획이다. 임시법당에는 사회노동위 부위원장 도철스님이 상주하며, 대흥사 송광사 등 교구본사의 도움을 얻어 희생자 추모 기도를 이어가게

된다. 도철스님은 “미수습자 수습이 완료되기까지 3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다”며 “미수습자 가족에게는 앞으로 시간이 더 힘들 수 있다. 조계종은 끝까지 가족들과 함께 하며 아픔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73일, 그리고 앞으로 약 100일의 시간,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가족,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종단의 약속은 현재진행형이다.

안직수 기자 isahn@ibulgyo.com

스님 장삼엔 언제나...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노란 리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수백 명의 소중 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슴 한 쪽에 노란리본을 달고 있다. 특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수장으로서 총무원에서 정부 관계자나 정치인 등의 예방을

받거나, 대외적인 공식행사에 참석했을 때도 노란리본을 단 장삼을 입은 모습이 자주 목격돼 눈길을 끌었다.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염원하는 리본 의미를 되새기며 ‘잊지 말자’는 뜻을 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총무원장 스님은 추모의 마음을 모으는 뜻에서, 집무실 한 칸에 걸려있는 대형 크기의 석굴암 부처님 액자에도 노란리본을 붙이고 기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단은 그간 실종자의 조속한 귀환과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그 중심에는 항상 총무원장 스님이 있었다. 지난해 6월에는 광화문 광장의 416가족분향소를 찾아 전명진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만나주고 2억여원의 지원 금을 전달했다. 이날 스님은 노란 리본을 만들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 “리본 만드는 의미를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뜻”이라고 당부해 잔잔한 울림을 줬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백년대계’ 위한 대중공사 올해도 계속

종단 주요소임자·지역단위도...

종단 집행부에서부터 대학생 불자까지 승속과 지위를 넘어 자유롭고 평등하게 대화하며 한국불교 미래를 위해 대중공의를 모으는 사부대중공사가 올해도 계속된다. 사부대중공사 추진위원회는 지난 23일 전법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추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을 선출하고 올해 대중공사 주요 추진계획 등을 승인했다.

우선 오는 4월13일 오전10시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불자, 출가자 감소와 한국불교의 현실’을 주제로 한 ‘종단 주요소임자 대중공사’를 시작으로, 4월18일 오전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백년대계본부 출범식과 함께 동일 주제로 1차 사부대중공사를, 6월29일에 ‘불자, 출가자 감소와 한국불교 대응 방안’ 주제로 2차 대중공사를, 8월31일 3차 대중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불자와 출가

자가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시대에 부응하는 한국불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열리는 종단 주요소임자 대중공사에서는 총무원장 스님이 기조연설을, 포교원장 자홍스님이 기조발제를 맡아 심도 깊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지역불교 활성화와 지역사부대중공사도 관심을 모은다. 고운사는 지난 18일 신 도정 포교당 건립방안 모색을 주제로 대중공사를 열었으며, 오는 5월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송광사는 오는 9월 교구 스님들의 복지와 거주문제 등을 주제로 대중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행혁신운동본부 출범을 앞둔 포교원과 협의해 전법공동체를 위한 지역별 대중공사도 추진한다. 이날 추진위는 위원장으로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호성스님을, 부위원장으로 중앙총회 수석부회장 조격스님과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을 각각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2만 수보리 금강경독송, 광화문 올린다

중앙신도회 4월 5일

5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라 안녕과 국민 행복을 기원하는 금강경 독송 소리가 울려 퍼진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흥)은 오는 4월5일 오후5시부터 2017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개막식 행사로 ‘2만 수보리의 합창, 금강경 독송정진’을 봉행한다.

이번 금강경 독송정진은 잊혀져가는 고유문화를 계승하고, 탄핵 이후 일고 있는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전통의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교구본사와 말사는 물론이고 지난해 순방한 300개 사찰 신도 등 2만여 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1부와 2부 행사로 나눠 진행되는 이날 행사는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의 불 이온 퍼포먼스’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이어 2만 수보리의 합창 금강경 독송

정진이 평화의 타종, 육법공양 등 예불 순에 맞춰 장엄하게 울려 퍼질 예정이다. 독송 이후 평화 기원문도 발표된다. 앞서 오후4시부터 불교연합합창단 및 법고 등의 사전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내소사 괘불 및 전통등 전시(4월3~5일)와 전통문화 체험버스, 놀이마당 등도 운영된다. 현장에서 참가 접수를 통해 일반인과 서울 지역 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로 다섯 번째 개최하는 행복바라미는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 등이 후원하는 범국민 문화대축전으로 7일부터 22일까지 나눔문화 캠페인과 지역문화제 개최로 보다 확대돼 진행된다. 지역문화제는 인천, 천안, 청주, 강릉, 전주, 대구, 부산, 광주, 울산 등에서 열린다. 이기흥 이사장은 “금강경 독송으로 국민대안을 염원하고 전국 모든 사찰들이 참여해 불자들의 역량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다영 기자

“평등의 날개 펴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

2011년 발족해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펼쳤던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가입단체를 재정비하고 재출범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와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05개 단체가 참여하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23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재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불교계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월 종단 신년기자회견에서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발원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수년째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주자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20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시민사회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탁 기자

창립 42주년
130평 대형선방
운영 30년
교육은 인생을
바꿨습니다!

참선교육 안내

참선교육을 통해서 확실한 신심이 생깁니다. 무량억겁을 생사윤회하다가 다행히 사람 몸 받고 불법 만났으며 참선법까지 만나는 것은 전생 선근인연 공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주변에서 참선하는 것을 몰라 망각하는 불자들에게 교육날짜를 함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통의 전화가 참선법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 간	2017년 4월 4일(화) ~ 4월 25일(화)	일 자	교육 내용
■일 시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4월 4일(화)	참선의 자세
■강 사	현담스님(참선교육 1,2,3권 저자)	4월 11일(화)	참선의 종류
■장 소	조계사 후문 (원당빌딩 4층)	4월 18일(화)	화두의 중요성
■동 참 비	3만원(점심공양 제공), 교재제공(참선교육 책 1권)	4월 25일(화)	화두 참구법

불교 유식(唯識) 강의

진실의 세계에서 흘러나오는 정법을 들음으로써 아뢰야식속에 신심이 생어지기 때문에 업식이 바뀌어 여러식은 마음이 없어지고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전미개요(轉迷開悟) 사상이 유식이다. 사람은 누구나 아뢰야식이 있다. 내용물이 정품이나 불량품이냐는 종자가 문제다.

↓기 간 : 2017년 4월 6일(목) ~ 4월 27일(목)
↓일 시 : 오전반 10시 30분 ~ 12시 30분, 오후반 오후 7시 ~ 9시
↓강 사 : 현담스님(LA 유식강의 저자)
↓장 소 : 조계사 후문 (원당빌딩 4층)
↓동 참 비 : 3만원(LA유식 교재 증정, 점심공양 제공)

修禪會 종로선방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02-732-5960)

진각국사·혜심 탄신 제11회 다례제 및 경로위안잔치

귀의 삼보하옵시고,

사단법인 진각국사 선양회는 예향의 고장 화순을 세계적으로 빛내신 선문염송의 저자이시며 고려후기2세 국사이신 진각국사 혜심 탄신839주년을 맞이하여 제11회 탄신 다례제 및 경로위안잔치를 개최합니다.

화순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 속에 봉행되는 이번 행사에 불자와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7년 4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 장소 | 남산화순군민회관
| 문의 | 061-372-0108, 010-2971-4646(도균)

사단법인 진각국사 선양회

주최 _ (사)진각국사 선양회 후원 _ 화순군, 화순군의회
협찬 _ 화순초교 37회 동문, 광주 동구 해원정사 추모원

